



보도자료

보도일시
2021. 4. 28. (수)
배포 즉시

매 수	참고자료	사 진	담당부서 : 기획감사담당관 홍보팀
2	×	○	담당관 : 김동석 (02-3677-2050)
			팀 장 : 이승구 (02-3677-2061)

김종천 과천시장, 국토위 소속 의원 만나 청사일대 주택공급계획 관련 대안 설명

- 정부의 청사 일대 주택공급계획 관련, 과천시 대안 설명
- 박영순, 장경태, 강준현, 홍기원 의원에게 문제 해결 위해 힘 모아 달라 설득

김종천 과천시장은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만나 청사 일대 주택 공급문제 해결을 위해 힘을 모아달라며 설득에 나섰다.

김종천 시장은 28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장경태, 강준현, 홍기원 의원을 여의도 국회에서 만나 정부의 8.4 대책과 관련된 과천시민의 심정을 전달하며 힘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김 시장은 과천의 상징인 청사 유희지를 주택으로 채우는 것은 과천시 도시 발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택공급만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천이 제시하는 대안은 청사 유희지에 주택을 짓는 대신 과천과천지구와 도시 발전을 위해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청사부지 일대는 기존 4호선 및 GTX-C노선, 과천~위례선 등 3개 철도노선의 환승역이 위치하게 될 교통의 요충지인 만큼, 국가와 도시 발전을 위한 종합병원 중심의 의료바이오클러스

터 및 업무, 쇼핑, 공원 등의 기반시설로 조성하는 것이 과천시민 및 국민의 편익과 정부의 정책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김 시장의 설명에 의원들은 과천시민의 입장을 이해하며, 과천시와 시민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라고 국토부에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김종천 과천시장은 “청사 일대 주택공급 문제가 완전하게 마무리 될 때까지,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당, 정부 주요부처 등을 찾아다니며 설득작업을 계속하겠다”라고 전했다.